대한제국기 원산항 노동자의 근대적 노동운동

현 명 호 *

1. 머리말
2. 1898년 5월 경무서 습격 사건
3. 1899년 9월 일본인 거류지 봉쇄 사건
4. 1900년 7월 反십장 운동
5. 맺음말

초록: 이 논문은 대한제국기 원산항 부두 노동자의 투쟁을 살펴봄으로써 근대적 노동운동의 의미를 재검토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들이 중간관리자인 십장의 지배 아래 있었고 독자적인 노동 조직을 조직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시기 노동운동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 같은 평가는 당시 조선의 경제가 아직 자본주의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소위 원시적 축적 이전단계, 혹은 이행기였다는 사회구성체 분석과 맞물려있는데, 이 관점에 의하면 대한제국기 원산항 노동자들의 저항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1929년 원산총파업이라는 일제 강점기 때의 대표적인 노동운동의 前史로서 소급 적용된 의의가 있을 뿐이다.

반면 본 연구는 이 시기 원산항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이 조선 말기 민중의 민란, 철시, 소장 등과는 구분되는 형태를 띤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이들의 시도가 근대적 노동운동의 하나의 사례였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가 노동 대중 운동의 주체는 스스로 지배 구조를 파악하고 운동의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했던 것을 틀로 삼아 부두 노동자들이 원산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타지인으로서 자신들에게 맞는 투쟁 방식을 개척해냈음을 보여주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1898년 5월 경무서 파괴 사건, 1899년 9월 일본인 거류지의 봉쇄, 그리고 1900년 7월 反십장 운동이란 세 가지 사례에서 이들이 정치적 선동을 모색하고 원산이라는 도시 공간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독자 대중에 호소했던 것을 서술함으로써 이들의 직접행동이 새로운 종류의 노동운동이었음을 입증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계급 형성론과는 다른 기준으로 노동운동을 평가하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원산, 부두 노동, 근대 노동운동, 자크 랑시에르, 대한제국기

* 뉴욕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

1. 머리말

원산은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 1880년 5월에 개항되어 조선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근대 무역이 시작된 곳이다. 개항 당시에 메이지 정부는 원산의 토착민 마을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일본인 거류지를 설치하고 해운의 편의를 위해 해안가에 석벽을 쌓고 항구를 만들었다. 항구가 생기자 무역품을 싣고 나르는 부두 노동의 수요가 생겨났는데, 조선인들이 부두 노동 시장에 대거 진입한 것은 청일 전쟁 후였다. 이들은 타지인들로서 원산 토착민과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들과도 충돌이 잦았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과 토착민 조선인에 동화되지도 그들에 의해 쫓겨나지도 않고 자신들의 독립적인 노동 조직을 이루었다. 이후 일제에 강점될 무렵에는 오히려 일본인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고용주인 원산 출신 객주 상인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부상했다.[1] 이를 바탕으로 1929년에는 일제 강점기 최대의 노동운동으로 잘 알려진 원산총파업을 조직하기도 했다.

대한제국기는 한국노동운동사의 기원이 된 시기로 평가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1898년에 시작해서 1903년까지 간헐적으로 지속한 목포항 부두 노동자의 투쟁은 임금 투쟁, 反십장 운동, 反일본牌 운동의 과정을 거치며 경제적 저항을 넘어서 항일민족운동으로까지 발전한 한국 최초의 노동운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 이 시기 노동자들의 저항은 목포항에서뿐만 아니라 경의선 및 경부선 건설 현장에서도 있었다.[3] 특히 조선 최초의 전국적 노무 조직인 노동회의 경우 건설노동자들

1) 朝鮮總督府農商工部, 1911『元山方面商工業調査』, 112-113面.

2) 李喆宇, 1983「光武年間의 木浦埠頭勞動運動硏究」,『學術論叢』7. 361면; 楊尙弦, 1986「韓末 부두노동자의 存在樣態와 노동운동: 목포항을 중심으로」,『韓國史論』14. 266면; 裵鍾茂, 1994『木浦開港史 硏究』, 느티나무, 174면; 1903 목포항 파업에 대한 짧은 영문 사료로는 1903 *Korean Review*,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pp. 558-8 참고. 반면 개항기 최초의 노동운동에 대해 윤진호는 『조선신문』의 기사를 전거를 삼아 인천항의 1892년 이전 파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윤진호, 2014「개항기 인천항 부두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조선신문』 자료를 중심으로」,『황해문화』83. 204-205면.

이 친일적 성향을 가진 노동회 간부의 임금 착취에 저항하면서 계급 간 갈등과 민족 갈등이 동시에 전개되기도 했다.[4)]

하지만 대한제국기 노동 조직의 성격과 노동자들의 의식은 아직 근대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과도기적 양상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5)] 이는 당시 노동운동을 이끄는 체계적인 이론이 부재했고, 노동자들이 중간관리자인 십장에 종속되는 등 성숙도도 낮았으며, 그들의 조직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근대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는 노무기관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 과도기론은 당시 조선의 경제가 이행기 단계에 머물러있었다는 사회경제사적 분석과도 맞물려있다. 즉, 조선은 자본축적이 미비해서 자본가의 성장보다는 노동자층의 확대 폭이 컸고, 산업 투자보다는 자원 수탈을 위한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부역 제도를 통한 강제적 동원에 노동력 공급을 의존하는 사회였다는 것

---

3) 鄭在貞, 1991「大韓帝國期 鐵道建設勞動者의 動員과 沿線住民의 抵抗運動」,『韓國史硏究』73, 125면.

4) 윤진호, 2012「대한제국기 '노동회'의 성격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운동의 기원과 관련하여」,『경제발전연구』제18권 제1호, 191면.

5) 한국 초기 노동운동의 과도기론은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노동사가들이 발전시킨 계급형성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론은 주어진 체제 내에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개량주의적(reformist) 운동과 노동자의 계급의식의 형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전복을 이루려는 혁명적(revolutionary) 운동을 철저히 구분함으로써 전자에서 후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노동운동사로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Hobsbawm, E. J. 1959 *Primitive Rebels: Studies in Archaic Forms of Social Movement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조직과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느냐 일상적 저항 문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웹 부부(Sidney and Beatrice Webbs) 등이 개척한 구노동사와 에드워드 톰슨(Edward P. Thompson) 등이 주도한 신노동사로 나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계급의식 각성을 기준으로 역사적 평가를 내린다는 점은 같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급을 사회 집단이 아닌 언어로 보는 분석, 젠더와 인종 정체성을 강조하는 관점, 일국사가 아닌 세계사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연구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었지만, 계급형성론은 여전히 서구 노동사 연구에서 주류 접근법으로 남아 있다. 서구 노동사 서술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Feldman, David, 2002 "Class", *History and Historians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2-204; van der Linden, Marcel, 2003 *Transnational Labour History*, Ashgate, pp. 1-5.

이다. 이 같은 관점에 의하면 대한제국기 노동운동은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전국적 노동조합이 등장한 1920년대 노동운동의 前史로서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게 된다.6)

그러나 대한제국기보다 1920년대의 노동운동이 더 발전된 형태라고 전제하고 원산의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물론 원산 부두 노동자도 1920년대에 들어서야 원산노동회/원산노동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전국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에 가입했다. 하지만 원산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공동 자금의 확보와 관리, 그리고 파업의 기획과 실행 면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앞서 받아들인 노동 지도자나 지역 유지들이 노동자 대중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등장하기 이전 대한제국기의 원산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지식인이나 그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줄 자산가의 도움 없이도 당시 동아시아의 부두 노동운동 가운데 유일하게 십장제의 개선이 아닌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할 만큼 급진적인 집단행동을 전개했다.7)

대한제국기 원산 부두 노동자들의 저항이 갖는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본 논문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논리적 폭동(logical revolt)" 개념을 원용한다.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두 단어인 "논리"와 "폭동"을 병치한 개념을 통해 랑시에르는 계급분석에 근거하지 않는 운동은 논리가 없는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비판한다. 동시에 대중 운동은 어

6) 李喆宇, 앞의 논문, 21면; 楊尙弦, 앞의 논문, 266면; 윤진호, 앞의 논문, 191면; 鄭在貞, 앞의 논문, 82면 86면.

7)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개항장 부두 노동자의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不破和彥, 1975「港湾勞働者の同盟罷業と「組」制度: 明治期 門司港の石炭仲仕の事例」,『東北大學教育學部研究年報』第28集; 松本和樹, 2011「明治前期における横浜港湾勞働者」,『史觀』164; Linda Cooke Johnson, 2000 "Chapter Thirteen Dock Labour at Shanghai", *Dock Workers: International Explorations in Comparative Labour History, 1790-1970*. Ashgate; Hershatter, Gail, 1986 "Chapter Five Winning the Turf: the Transport Workers", *The Workers of Tianjin, 1900-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

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대중의 원천적 비규정성에서 비롯된다는 본질주의자들(essentialist)과도 거리를 둔다.[8] 랑시에르에 의하면 논리적 폭동은 평등을 최종 도착점으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이미 평등한 지적 능력을 가진 대중의 정치적 저항 운동이다.[9] 이 논리적 폭동의 사례로 랑시에르는 19세기 중반 한 프랑스 노동자가 사육제(Carnival) 기간에 파리에서 일어난 저속한 행위를 비판하며 잡지에 기고한 글을 제시한다. 사육제 기간 동안에는 노동 대중이 거리에서 마음껏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것이 허락되었다. 부르주아지를 비롯한 프랑스 지배층은 노동계층을 본래 방탕한 이들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육제 기간에 이들이 노동자'답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개입하지 않았다. 비논리적인 존재로 취급당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다른 노동자의 저속한 행위를 비판한 노동자-저자의 이 같은 논리적 행위는 자신에 대한 외부 권력의 규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리를 찾는 정치적 저항이었다는 것이다.[10]

이 논문은 대한제국기 원산의 부두노동자들이 전개한 일련의 저항을 랑시에르의 논리적 폭동 개념에 기초하여 근대적 노동운동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이들의 운동이 서구식 노동 운동 방법과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이 고유한 관습과 문화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운동 형태를

---

8) Rancière, Jacques, (trans. David Fernbach), 2011 *Staging the People: The Proletarian and His Double*, Verso, p. 10.

9) 자크 랑시에르는 1960년대에 루이 알튀세르의 마르크스주의를 재정립하는 철학적 기획에 참여했지만, 그 후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저항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는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받은 역할들(roles)과 공간들(places)의 배열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그 배열의 결정권이 없는 사회 구성원이 전에 없던 역할이나 공간을 만들어내서 전체 구성을 재배열시키는 과정을 정치라고 말한다. 랑시에르의 대표적인 정치 이론서와 역사적 사례 연구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Rancière, Jacques, 2008 *Disagreement: Politics and Philosoph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한국어 번역서는 자크 랑시에르(진태원 옮김), 2015『불화: 정치와 철학』, 프런티어21); Rancière, Jacques (trans. by Donald Reid), 1989 *The Nights of Labor: The Workers' Dream in Nineteenth-Century France*. Temple University Press.

10) 랑시에르가 특히 주목한 것은 기독교 사회주의 매체인『아틀리에 (L'Atelier)』에 실린 프랑스 노동자들의 글이다. Rancière, op. cit. (2011), pp. 95-96.

만들었다는 뜻도 아니다.[11] 이 운동의 근대성은 원산항 노동자들이 서구식 노동조합주의가 전개되지 않은 시대에 토착민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전통적인 시위 방식에도 접근할 수 없었던 타지인으로서, 그들을 무법적인 부랑자로 여기던 조선 정부와 공격적인 일본인 거류민들, 그리고 배타적인 원산 토착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는 1898년 경무서 습격 사건, 1899년 일본인 거류지 봉쇄 운동, 그리고 1900년 反십장 운동은 원산항 부두 노동자들이 민란, 撤市, 그리고 청원이라는 전통적인 저항 방식이 아닌 정치적 선동과 도시 공간의 전략적 이해 그리고 근대적 과학 기술을 활용해 벌인 창의적인 노동운동이었다.

원산 부두 노동자의 저항을 복원하기 위해서 본 논문이 원용하는 사료군은 두 가지이다. 우선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한제국 정부 문서로, 개항장의 행정과 사법 업무를 총괄했던 監理와 그의 상위 기관인 外部가 주고받은 『덕원항보첩』과 지방민들이 중앙 정부로 직접 발송한 청원서를 철한 『訴狀』이 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의 공문서들은 원산항 노동자들이 당시 지역 사회에서 타자로서 부정적 낙인이 찍혔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원산 감리를 지낸 윤치호의 영문 일기, 프랑스인 선교사의 서한, 원산 부두 노동자들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 등은 이 시기 노동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편지를 제외하면 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그들을 가까이에서 겪은 이들의 사적인 기록으로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고한 흔적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

11) 이 점에 있어서 이 논문은 19세기 민중 운동의 본질을 전통적 士意識의 발전으로 보는 조경달의 견해나 독자적으로 발단한 관습 영역에서 민중의식의 근원을 찾으려는 배항섭의 시도와 구분된다. 조경달(허영란 옮김), 2009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 근대 민중운동사』, 역사비평사, 390면; 배항섭, 2010 「'근대이행기'의 민중의식: '근대'와 '반근대'의 너머— 토지소유 및 매매관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3, 60-61면.

2. 1898년 5월 경무서 습격 사건

〈그림 1〉 선박 하역 (Unloading Boat), 1895년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12)]

19세기말 원산항 조선인 부두 노동자〈그림 1 참조〉들은 개항 이후 국제 무역의

12) 1895년 10월에 미국인 William Henry Jackson이 찍은 이 사진에는 원산항에서 선박과 육상을 오갈 수 있도록 걸쳐 놓은 널판 위를 걸어가는 한 부두 노동자가 나온다. 흰 두건으로 머리를 감싼 모양, 통이 넓은 흰 윗도리와 바지, 그리고 짚신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인 노동자이다. 그는 지게를 메고 자신의 상체보다 큰 곡식 가마니를 나르고 있는데 당시 원산항의 최대 수출품이던 콩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가마니를 메고 향하는 선박은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널판이 수평인 상태로 보아 선창보다 높지 않은 배, 즉 나룻배이다. 원산항은 1910년대 항만 매립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증기선의 경우 육지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수면에 정박시키고 나룻배로 하역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사진의 원본은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장과 함께 등장한 임금 노동자이자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닌 이주노동자였다.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처음 원산항에 등장한 것은 청일전쟁 때였다. 군수품 하역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지자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원산항에 모여들었다.[13] 전후에도 최소 백 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원산항에 남았다. 1890년대 하반기에도 원산항에 입항한 선박의 수가 2배 이상, 선박 톤수는 20프로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에 따라 초과 노동 수요가 발생하자 이들이 계속 원산항에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4] 전쟁 기간만 제외하고 당시 일본인 거류지 안에 있던 원산항에서 하역업은 일본인이 독점적으로 경영하면서 일본인 부두 노동자를 고용했다. 1899년 9월 이 독점 체제가 깨지기(3장 참조) 전까지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은 일본인 仲仕組(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일본인 부두 노동자 단체)를 통해 취업했는데, 이후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하역업에 십장을 통해서 취업했다(4장 참조). 이들은 원산항에서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무리[朝聚暮散]"로 불렸는데, 그날 필요한 인력만을 오전에 집단으로 고용하던 부두 노동 시장의 일반적 관행이 반영된 이름이었다.[15] 원산항 하역업은 6월부터 시작되는 콩 집산기와 겨울의 명태/북어 출하기에는 성황이다가 2월부터 3-4개월간은 불황을 맞는 등[16] 계절에 따라 격차가 심해서 "집도 재산도 없었던[無家屋恒產]"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은 행상이나 거간 일을 겸해야 했다.[17] 원산 지역 사회는 "여기 저

13) 高尾新右衛門, 1915『元山發展史』, 205면.

14) 주한 영국 영사의 보고에 따르면 동 기간 원산항에 출입한 증기선 수는 1895년 93척(83,547톤)에서 1900년 221척(107,968톤)으로 증가했다. Jarman, Robert. 2005. *Korea: Political & Economic Reports 1882-1970.* [Slough]: Archive Ed. Vol. 4, p.619; Vol. 5, p.194, p.469.

15) 『덕원항보첩』 2, 광무 2년 5월 23일.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main.do)

16) 1898년 원산 주재 일본 영사의 보고를 기반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가장 호황이던 8월의 입항 선박 톤수(29,442톤)는 가장 불황이던 3월(5,171톤)보다 6배 높다. 콩은 원산항의 최대 수출품이었는데, 이 해에는 영흥 지방으로부터 집산되는 대두가 늦어져 5월은 길주 지방에서만 출하가 있었고, 6월에 들어서서야 길주, 명천, 경성, 단천 등지로부터 대두 집하가 이루어졌다.『通商彙纂: 韓國篇』8, (驪江出版社 영인본 176면, 408면, 453면, 619-620면).

기 돌아다니면서[四處年散]" "상매나 일삼는[惡行商賣]"이들을 배척했는데,[18] 특히 이들과 충돌이 잦았던 것은 원산항에 새로 설치된 警務署였다.

갑오 개혁기에 도입된 경무서는 치안유지에 집중하는 사법 경찰을 넘어 계몽과 근대적 사회질서 수립에 관여하는 행정 경찰 측면이 강조된 근대적 경찰 조직이었다.[19] 하지만 이러한 행정 경찰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일상을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폭력성도 잠재했는데, 이는 1895년 단발령 집행으로 구체화되었다. 경무서의 순검들이 길을 막고 있다가 행인의 상투를 강제적으로 잘라버리거나 인가로 쳐들어가 남자들의 머리카락을 마구 깎아 버리는 통에 "곡성이 진동했다."고 한다.[20] 풍기문란 예방이란 명목으로 경찰이 사람들의 여가 생활을 단속하는 일도 잦아졌다. 특히 잡기라고 불린 도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도적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으로 여겨져서 더욱 강력하게 단속했다.[21]

원산을 포함한 개항장은 조선 정부가 즉시 경무서를 설치한 지역 중 하나였다. 경무서 설치의 여파는 원산에서 바로 나타났다. 단발령 시행 후에 가위를 들고 다니는 경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장날에도 외출을 피하는 바람에 한번은 8일 동안 땔감도 쌀도 생선도 살 수 없었다.[22] 원산 주민들 중에서도 부두 노동자들은 경무서의 잦은 단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술과 노름"을 좋아하고[23] 경무서와 가까운 항구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1898년 5월 20일에는 부두 노동자 2명이 원산의 일본인 거류지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하고 도둑질을 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24]

---

17) 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256면; 『소장』 2, 함경남도 덕원항 김병필 1898년 6월.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main.do)

18) 『소장』 4, 1900년 7월 함경남도 원산항 패장 백동식.

19) 손영상, 2007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제도의 정립과 운영」, 『한국사론』 제53집, 336-7면.

20) 황현, 『국역 매천야록』 2권, 고종 32년 (을미 1895년) 9. 고종의 단발과 단발령 시행.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21) 손영상, 앞의 논문, 371면.

2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1995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1. 원산 본당 편 (1887-1921)』, 한국교회사연구소, 245면.

23) 한국교회사연구소, 위의 책, 257면.

경무서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어 있던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이 경무서를 습격한 것은 그 다음날인 5월 21일이었다. 이날 오전에 원산항 경무서는 조선인 부두 노동자 다섯 명을 도박 혐의로 체포했다. 잡혀간 한 노동자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들은 그는 즉시 경무서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서장의 명에 따라 곤장을 맞아야 했다. 그는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화가 난 조선인 노동자들과 함께였다. 같은 날 오후 7시경, 백 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원산 경무서를 습격했다. 그들은 경내로 들어가 감시 초소와 응접실을 부수고 경관의 검을 빼앗아 던졌으며 몽둥이로 경무관들을 때렸다.[25]

부두 노동자들의 경무서 습격 시위는 원산 향촌 사회 토착민들의 반 경찰 시위와 조직 방식이 전혀 달랐다. 1896년 9월, 장상신이라는 원산 출신 객주 상인이 추석날 지인들과 도박을 한 그의 72세 아버지를 대신해서 잡혀갔다가 경관이 때린 곤장에 맞아 죽자 원산 사람들이 경찰서를 부수고 경관을 때리고 경관들의 집을 불태우며 장상신을 체포하고 곤장을 친 경찰관을 공개 처형하라며 분노를 표출한 일이 있었다.[26] 토착민들은 이 봉기를 소위 민란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조직했다. 민란은 조선 철종 치하 임술(1862)년의 농민 봉기를 통해 자리 잡은 민중 운동으로서, 19세기 후반에 걸쳐 꾸준히 전개되면서 일종의 공식적인 절차가 생겨났다. 즉, 지방 관청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마을의 지도자들이 통문을 돌리고 "鄕會"를 열어 집단행동의 여부를 결정한 뒤 관청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물을 부수는 등의 거친 시위로 이어지는 과정이 전국 각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27] "향회"가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란 점을 감안할 때, 민란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민은 선택할 수 있지만

2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 「露兵의 한인致死事件으로 인한 元山住民 暴動 再起의 件」 1898년 5월 23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25) 『덕원항보첩』 2, 광무 2년 5월 23일.

26) 『덕원항보첩』 2, 건양 원년 9월 25일과 29일.

27) 배항섭, 2008 「조선시대 민중의 시위 문화: 신문고에서 복합상소까지」, 『내일을 여는 역사』 33-35면;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사 36: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337면.

부두 노동자들 같은 타지인은 접근할 수 없는 시위 조직 방식이었다.[28]

대신 부두 노동자들은 시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개발했다. 그들은 "외국인"의 중범죄는 손도 못 대고 조선인의 경범죄만 엄하게 다루는 "없느니만 못한 경무서이므로 타파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주장을 펴면서[29] 소위 "러시아 병정 건"을 인용했다. 이는 1898년 5월 3일, 통역 둘[30]을 동반한 러시아 병사 한 명이 순찰을 하던 경관의 검을 빼앗아 길을 지나가던 소장수 한 명을 찔러 죽이고 또 경무서에도 들이닥쳐 부엌일을 보던 하인 한 명을 찔러 죽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조선인 경관들은 검을 빼앗겨 범인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격이 됐고, 그가 경무서에 들이닥쳤을 때 달아나 버렸다. 또,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신고를 당한 범인의 러시아 상관이 그를 체포할 때도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다.[31] 부두 노동자들의 의도대로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데 취약한 조선 경무서라는 이미지를 그리는데 적절한 사건이었다.

부두 노동자의 러시아 병정 사건 언급은 19세기 말 국제 관계에서 약자로 전락한 조선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는 경무서의 무능 이상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러(朝-露) 국경 지대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흰옷을 입는 조선인을 "백조 사냥"이라며 총으로 쏘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 조선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32] 또한 당시 러시아는 일본과 함께 조선을 분할 통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평양-원산 이북의 영토를 광범위하게 측량하고 있었는데 조선 정부는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위 사건의 러시아 병정 건

---

28) 『덕원항보첩』 2, 건양 원년 9월 25일과 29일; Bae, Hang-seob, 2010 "Kaesŏng Uprising of 189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5, pp. 93-120.

2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 「露兵의 한인致死事件으로 인한 元山住民 暴動 再起의 件」 1898년 5월 23일.

30) 이들은 러시아에 귀화한 조선인들로, 그중 한 명은 1920년대 원산 노동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한기주였다.

31) 『덕원항보첩』 2, 광무 2년 5월 6일.

32) 가린-미하일롭스키 (이희수 옮김), 2010 『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랴오둥반도: 가린-미하일롭스키의 여행기』, 동북아역사재단, 174면.

도 그는 군사지리학자 루벤쵸프(A. G. Lubenchov)가 이끄는 러시아 탐사대의 일원이었는데 조선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33]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조선 정부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섰고 적개심을 먼저 보인 조선인들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외교적 교섭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현지에서의 처형을 간절히 바란 원산의 조선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34]

러시아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부두 노동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사건 당시 원산항 감리였던 朴義秉은 外部로 보낸 보고서에서 타지 출신인 부두 노동자들은 일정한 거주가 없는 부랑자들로 항상 소란을 일으키고 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존재라고 비난했다. 감리에게 러시아 병정 사건은 자신의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가능하면 언급 자체를 피하고 싶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원산 지방에는 피해자 가족이 충분히 보상받기 전에 살해된 시신을 가해자의 집 앞에 놔두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 유가족들은 시신을 감리서 앞에 놔두고 감리를 "피의자의 동정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빠른 처리를 독촉했었다.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감리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었다.[35]

또한 감리 박의병은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서 부두 노동자들을 원산 토착민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원산에서 타지 출신과 원산 출신 사이에 붉어진 갈등을 반영했다. 원산 출신의 조선인들도 러시아 병정 문제에서 드러난 조선 정부의 무능함에 불만을 품었지만, 그들에게 부두 노동자들은 똑같이 차별받는 조선인이라기보다는 폭동이나 일으키는 부랑자들이었다. 심지어 한 토착민은 경무서 폭동이 일어난 한 달 후에 정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그들을 산적과 마찬가지인 존

33) 와닌 유리 바실리예비치,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이영준 옮김), 2016『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을미사변에서 광복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63-75면.

34)『덕원항보첩』2, 광무 2년 5월 6일;『주한일본공사관기록』13,「露兵의 한인致死事件으로 인한 元山住民 暴動 再起의 件」1898년 5월 23일.

35)『덕원항보첩』2, 광무 2년 5월 23일.

재로 보고 군대를 동원하여 제압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토착민들의 불만이 보여주듯이 원산의 지역 사회는 이 새로운 노동자들에게 배타적이었다.[36]

하지만 부두 노동자들은 시위의 정당성을 개발함으로써 습격 사건에 대한 논쟁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어찌 됐든 간에 법으로 금하는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었고, 민란의 경우처럼 공인된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시위 행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제3의 사건을 끌어들여 도박이라는 문제를 흐리면서 경무서의 무능 혹은 조선인 차별로 논점을 전환시켰다. 그 결과 습격 현장에서 경무서 습격은 경무관의 잘못된 처분에서 비롯되었다는 감리의 선언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37]

1898년 5월 원산 부두 노동자의 경무서 습격 사건은 토착민이 아니라 타지 출신들이 지방 정부에 맞서 반발한, 당시로는 흔치 않은 대중 시위였다. 이 시위는 조선 민중들이 주로 민란이란 일반화된 절차를 밟아 관리의 횡포에 저항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을 공유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논리를 개발해 자신들의 봉기를 정당화한 점이 특징이었다. 시위의 결과 부두 노동자들은 사과를 받는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당시 원산 지역 사회의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 1899년 9월 일본인 거류지 봉쇄 사건

원산의 일본인 거류지는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메이지 정부가 1880년에 선점한 지정학적 요지였다. 하지만 해외 군항을 운영할 자금이 없었던 당시 일본 정부는 원산 거류지에 석조 해벽 건설, 증기선 운항, 소액의 사업 자금 지원 같은 최소한의 상업적 투자밖에 할 수 없었다.[38] 그래서 마치 홋카

36) 『소장』 2, 덕원항 김병필 1898년 6월.

37) 『덕원항보첩』 2, 광무 2년 5월 23일.

38) 양상호, 1994 「원산거류지의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3권 2호,

이도(北海道)를 식민지로 만들 때 자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개척민을 동원해 屯田制를 실시했듯이,[39] 메이지 정부는 원산 거류지의 운영을 일본인 거류민에게 맡겼다. 특히 그들의 주요 경제 활동이었던 상업은 원산 거류지의 존속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1890년대에 러시아 기반의 상인들이 함경도 상권을 침범했을 때 원산 일본인들은 이를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밀수업자들은 작은 낚싯배나 상선을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함경북도부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갔다.[40] 특히 1897년,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해운업자와 조선의 지방관이 결탁해 중국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온 영국산 면제품과 함경도 소의 밀무역을 추진하던 일이 밝혀지면서 원산 일본 무역상들의 위기감은 극도에 달했다.[41] 당시 조선의 일본 공사가 직접 "러시아의 함북 지방 경영"에 대항해서 일본의 "상업적 전략적 이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였다.[42]

함경도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원산의 일본 상인들은 증기선을 이용한 연안 해운업을 시작했다. 이 해운업은 외국 국적의 상선이 영업할 수 없는 함경도의 미개항장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일본 상인들은 법을 우회하기 위해 조선인의 명의를 빌렸다. 이 때문에 1893년 함경도 연안 해운 항로가 열렸을 때 일본인 소유 선박이 조선인 상인의 이름으로 허가가 났다.[43] 러시아와의 무역 경쟁이 심화된 1897년에는 원산 주재 일본 영사 후타구치(二口美久)가 같은 항로의 증편을 주장했고 선박

96-97면.

39) Sidney, Lu, 2016 "Colonizing Hokkaido and the Origin of Japanese Trans-Pacific Expansion, 1869 - 1894," *Japanese Studies*, Vol. 36, No. 2, pp. 251-262.

40) 『日本外交文書』, 1892 「咸鏡道沿岸へ露國船出入密貿易一件」, 415-417面. (일본외무성 디지털콜렉션).

41) 김재호, 「1999 개항지 원격지무역과 '회사': 대러시아 무역과 경성천일회사」, 『경제사학』 27권 0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2, 「露船北關不開場에 出入의 件(第二報告)」 1897년 5월 31일.

4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2, 「北關海岸에 通商港을 開港해야 한다는 當局의 內議에 관한 意見 上申의 件」 1897년 9월 4일.

43) 羅愛子, 1998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國學資料院, 249-50면.

두 척이 새로 투입되어 많은 영업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44] 후타구치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선박들도 조선 깃발을 걸고 있었지만 "이면은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즉,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었다.[45]

그러나 조선인들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운업과 하역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는데, 이러한 전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은 원산 감리를 지낸 적[46]이 있는 金益昇이었다. 1897년 11월, 관직보다는 기업 설립에 더 큰 관심이 있던 김익승은 외국 선박은 일본인이, 조선 선박은 조선인이 하역하자는 계약을 원산 일본인 상인들에게 제안했다. 이미 다른 개항장에서 실시되고 있었고 일본인의 하역 할당량이 조선인의 10배 이상 되는 결과를 낳는 계약이었으므로 일본인들에게는 불리할 게 없었다.[47] 다음 해 4월 김익승은 선박 하역용 나룻배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오직 조선인들로 부두 노동자를 채웠고, 석 달 후에는 그의 오랜 친구인 원산의 유력한 일본인 상인 카메야 아이스케(龜谷愛介)와 같이 새로운 연안 해운회사를 열었다.[48] 이 사업에 사용된 증기선 세카와마루(瀨田川丸)는 카메야의 이름으로 임대한 것이지만 이 사업에 우편 업무를 접목시켜 세관 통과 시에 편의를 꾀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김익승이었다.[49]

김익승이 주도한 조선인 사업의 증가로 원산항에서 민족 간 경쟁이 가시화되었다. 1898년 9월경 조선 선박의 원산항 입항이 외국 선박의 절반 규모까지 상승하면서 앞서 말한 하역 사업 분할 계약은 더는 일본인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장해줄 수 없게 되었다.[50] 일본 영사는 김익승이 전직 관리라는 점에서 그의 개업

---

44) 『通商彙纂: 韓國篇』 5, 320-321면; 『덕원항보첩』 2, 광무 원년 7월 5일.

45) 『주한일본공사관문서』 12, 「露化한인 北關未開港場出入 貿易試圖 件」, 1897년 11월 16일.

46) 김익승은 1895년과 1896년에 원산항에서 관리로 근무했다.

47) 백브레트 (임충신 옮김), 1968 「원산에서 북간도까지」, 『경향잡지』 3월호, 38-39면.

48) Kenji, Kimura, 2003 "Japanese Business Networks in Prewar Korea: The Case of the Enterprises of Kameya Aisuke", *Commercial Networks in Modern Asia*, pp. 39-44.

49) 『덕원항보첩』 2, 1898년 7월 9일.

50) 『通商彙纂: 韓國篇』 6, 602-603면.

은 조선 정부는 개항장의 해운 사업에 개입할 수 없다는 통상 조약 8조의 위반이라며 外部에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한 분풀이로 일본인 부두 노동자들은 1898년 10월, 원산항에서 배에 타려던 김익승의 모관을 부수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물에 던져 버렸다.[51]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족 간 대결에서 일본을 대표한 것은 일본인 부두 노동자들이었다. 김익승을 폭행한 사건에서도 엿보이듯이 원산항에서 일본인 부두 노동자들은 폭력적인 집단행동으로 유명했다. 이들의 횡포를 "일본인 쿨리 통치(Japanese cooliocracy)"라고 부르던 당시 감리 윤치호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하역 사업에 진입하려는 조선인들을 "막대기, 칼, 고리, 게다로" 폭행했다. 이들의 불법적 폭력은 원산 일본 영사관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는데, 조선인 감리서 직원들도 종종 폭행을 당했고 세관에서 근무하는 한 외국인도 "두꺼운 모자를 쓰지 않았더라면 머리가 부서졌을" 정도의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52]

일본인 부두 노동자들이 강력한 집단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원산항 일본인 거류지를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무역이 경제의 중심이었던 원산 일본인 거류지에서 무역품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하던 일본인 부두 노동자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주로 퇴역 군인으로 구성된 그들은[53] 원산 거류지에서 가장 큰 직업군이었고,[54] "구미가시라(組頭)"라는 수장의 온정주의적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미(組)"조직으로 결속되어 있었다.[55] 또한 그들의 영업 활동

---

51) 『덕원항보첩』 2, 1898년 10월 26일.

52) 『국역 윤치호 일기』 4, 1899년 12월 31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53) 『해외사료총서 21권: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II (1900-1903)』, 91. РГАВМФ, ф. 467, оп. 1, д. 264, лл. 2~3об. (원산항에 대한 정보 1902년 9월 26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54) 원산 일본인 거류지에서 1887년에는 조사된 150명 중의 28명, 1895년에 조사된 734명 중 140명이 부두 노동자로 가장 큰 직업군이었다. 高尾新右衛門, 앞의 책, 94-95면; 『通商彙纂: 韓國篇』 2, 701-702면.

55) 메이지 일본의 부두 노동자의 구미 조직에 대해서는 不破和彦의 앞의 논문 138-139면을 참조.

은 원산 거류지의 자체 법규에 의해 보호받았다. 원산항에서 조선인들이 막 해운 사업에 뛰어든 1893년에는 부선 영업 규칙이 통과되어 하역용 나룻배의 운영을 일본인 통제 속에 두었고, 조선인 부두 노동자가 증가하던 1898년에는 부두 노동자 조합 규칙이 통과되어서 오직 등록된 노동 조직만 하역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시 등록된 부두 노동자 조직은 산코구미(三光組), 코에이구미(光榮組), 아사히구미(朝日組), 쵸쇼구미(長小組), 후쿠시마구미(福島組) 다섯 개로 모두 일본인 조직이었다.[56]

원산항에서 하역 사업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조선인 자본가들은 정부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국제적 위상이 약했던 조선 정부가 외국인 부두 노동자들을 타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조선 개항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관할하는 조선 정부의 최고 기관인 外部는 1898년 10월 김익승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彼我人民으로 一任其便하야 互相營業케 하라."는 訓令을 내렸을 뿐이었다.[57] 알아서 하게 하면 서로 좋게 나누어 영업할 것이라고 外部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다음 해 5월, 農商工部의 허가를 믿고 하역 시장에 진입을 시도한 두 명의 원산 조선인 사업가는 또다시 일본인 부두 노동자들의 폭력 앞에 좌절했다. 억울한 조선인들의 청원에 外部는 다른 개항장의 사례를 들어 그들의 사업 시도가 정당하다고 확인해줬지만, 원산항의 하역업 독점을 깰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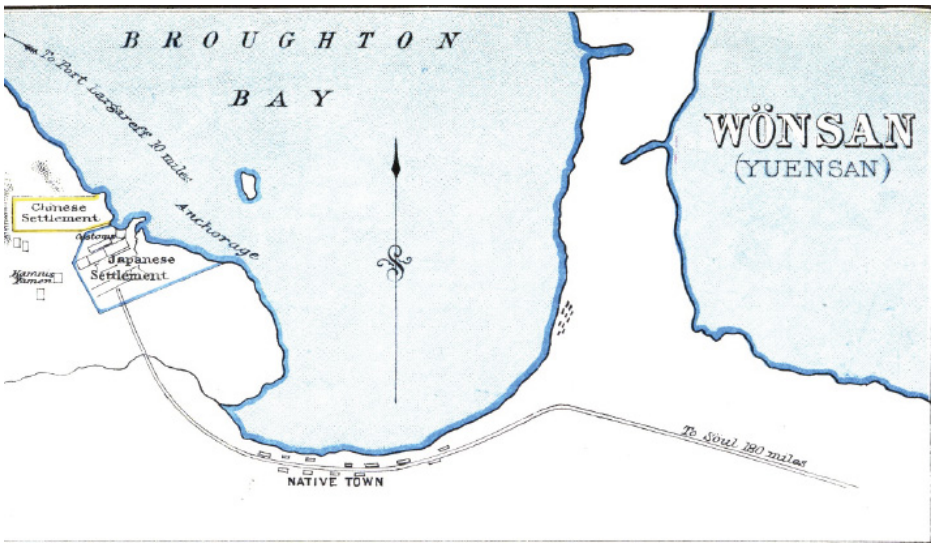
원산 출신의 조선 자본가들이 기존의 관행대로 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과는 달리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은 1899년 9월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당지의 일본인 거류지와 토착 조선인 마을인 원산리(〈그림 2〉 참조) 사이에 흐르는 赤田川에 놓인 작은 다리를 막고 원산항 하역업의 조선인 지분을 요구했다.

---

56) 高尾新右衛門, 앞의 책, 183면, 247면.

57) 『덕원항보첩』 2, 광무 2년 11일 2월.

58) 『덕원항보첩』 2, 1899년 5월 19일.



〈그림 2〉 원산 일본인거류지("Japanese Settlement")와 원산리("Native Town")[59]

이 다리를 통제함으로써 그들은 땔나무와 해초 장사꾼들, 물장수들, 그리고 크고 작은 상인들의 두 구역 간 통행을 두절시켰다. 수출품의 거의 대부분과 생필품의 일부를 원산리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했던 일본인 거류지는 곧 물자가 동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리 봉쇄는 그때까지 원산에서 발생한 경제적 시위 중 가장 오랜 기간인 10일 동안 지속되었다.[60]

원산 부두 노동자들은 2년 전인 1897년 9월 이미 비슷한 형태의 다리 봉쇄 시위를 조직한 경험이 있었다. 일본인 상인과 빚 문제로 다툼이 있던 한 조선인 거간꾼이 살해당하자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때는 주위에 널려 있던 돌을 이용해 다리 주변에 돌담을 요새처럼 쌓고 투석으로 위협하며 통행을 차단하는 방법을 썼다.[61] 당시 조선의 노동 대중의 일상에서 드물지 않은 행사였던 돌싸움을 저항 수

59) 1895 *Corea: Communicated by Christopher Thomas Gardner*, Australasi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Plate LVII.

60) 『通商彙纂: 韓國篇』 8, 555면; 高尾新右衛門, 앞의 책, 322면; 『국역 윤치호 일기』 4, 1899년 12월 31일.

단으로 활용한 경우였다.[62]

부두 노동자들의 통상 방해 시위는 앞서 언급한 1896년 9월 원산 객주 장상신 치사 사건 때 원산 출신 주민들이 조직한 "撤市"투쟁과도 구분되는 방식이었다.[63] 두 시위 모두 상품 유통을 정지 시켜 자신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철시는 상품의 소유자이거나 장시가 열리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진 자만이 택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었다. 예컨대 1890년 1월 서울에서 발생한 철시 시위는 외국인의 점포 영업을 허가한 조선 정부에 항의하는 운동이었는데, 이를 주도했던 집단은 당시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영업해온 시전 상인들이었다.[64] 즉, 타지 출신으로서 원산항에서 중개 수수료나 임금으로 생활하는 거간꾼들과 노동자들이 조직할 수 있는 시위는 아니었다.

원산 부두 노동자의 통상 봉쇄는 원산이란 공간의 특징을 잘 활용한 시위이기도 했다. 1880년 문을 연 원산 일본인 거류지는 메이지 정부가 군사상의 요지로 생각해서 설치한 곳인 만큼 공간적으로 폐쇄적이었다. 일단 이곳 일본인 거류지는 다른 외국인의 거주를 허용하지 않았다.[65] 1880년대 후반에 원산항 중국인 거류지가 설치되었을 때 그때까지 일본인 거류지에 임시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모두 새로운 거류지로 이동해야 했다. 1898년 4월 러시아 해운업자가 일본인 거류지의 부지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주한 일본 공사가 원산 주재 일본 영사에게 그 땅을 먼저 사버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66]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가 1894년 원산 일본인 거류지를 방문했을 때 "조선인이나 다른 외국인들과 마찰이 없는 곳"이라고 평가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67] 또한 원산 일본인 거류지는 지형적으로도 고립되어

---

61) 高尾新右衛門, 앞의 책, 244-245면.

62) Gale, James Scarth, 1896 "Korean Coolie",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 475-481면.

63) 『덕원항보첩』 2, 건양 원년 9월 25일과 29일.

64) 김정기, 1989 「1890년대 서울 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 『한국사연구』 67, 99-100면.

65) 원산항 세관에 근무하던 유럽인들과 원산에서 활동하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예외였다.

66) 『주한일본공사관문서』 13, 「露國 商人이 買入하려는 日本人 所有 土地 매매 거절 지시」 1899년 04월 17일.

있었다. 이 거류지 공간은 북쪽의 중국인 거류지와는 산등성이로 격리되어 있었고, 서쪽도 산으로 막혀있었으며, 동쪽은 바다였고, 남쪽의 조선인 마을과는 중간의 넓은 습지 때문에 통행에 제한이 있었다. 원산 거류지에서 가장 통행이 잦았던 곳은 항구였는데, 이곳에는 개항 당시 건설된 석조 해벽을 1890년대 초반에 증축하는 등 얼마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68] 하지만 남쪽의 조선인 마을을 연결하는 작은 목조 다리는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장마철에는 종종 다리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69]

폐쇄적인 원산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 구조 때문에 원산의 이 작은 통행로는 도시 전체의 통상과 교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요지가 되었다. 1880년대에 후반 퇴거당하기 전까지 중국 상인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상업 활동에서 일본 상인들을 압도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거류지의 목구멍에 있는 가옥을 빌려 조선인의 왕래에 중요한 통로를 점유"해서 상품 구매를 선점했기 때문이다.[70] 1895년 전국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는 원산 일본 당국이 조선인 마을에서 "일본인 거류지로 가는 길목"인 이 지점에서 방역을 했다.[71] 또한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은 이 다리 봉쇄 시위를 전개하는데 가장 적합한 원산 거주민이었다. 그들은 이 통행로의 바로 남쪽, 그러니까 일본인 거류지의 남쪽이자 조선인 마을의 북쪽 부근에 살고 있었다. 그 부근은 "官橋洞"과 "石隅洞"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관교란 일본인 거류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 다리를 말하고 석우는 돌산의 끝자락을 의미했다. 원산에서 서울로 가는 대로가 나 있는 이 부근은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어 어업을 주로 했던 원산 토착민들이 모여 살던 곳은 아니었고 개항 초기만 해도 공유지로 남아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여기서 땔감을 하고 나물을 캐고 가축을 먹였

67) Bird, Isabella Lucy, 1918 *Korea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s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Country*. London: J. Murray. p.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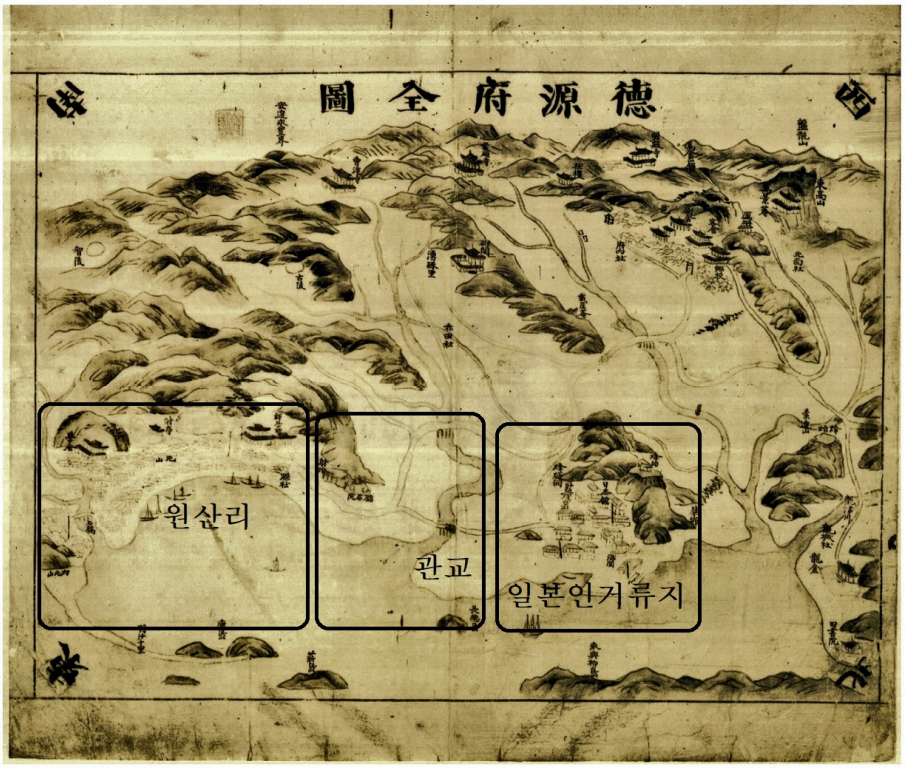
68) 규장각편, 『元山港日本居留地海岸提防築造工事條約書』, 고종29년 (奎26111).

69) 『덕원항보첩』 2, 1897년 3월 2일.

70) 古川昭, 2004 『元山開港史 : 元山開港と日本人』, ふるかわ海事事務所, 40面.

71) 『해외사료총서 12권: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Ⅰ (1854~1894)』, 102. РГАВМФ, ф546, оп1, д7, лл80~8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다.[72] 그 후 1890년 한 영국인이 이곳의 한인 가옥 10채를 사들이고[73] 당지의 프랑스 가톨릭 선교회가 이 부근 토지를 대량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이 부근은 점차 거주지로 바뀌어 간 것으로 보인다.[74] 〈그림 3과 그림 4 비교〉



〈그림 3〉 춘성부지에 수록된 원산의 지도, 1885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75]

72) 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214면.

73) 『원산항관초』 2, 1892년 3월 16일.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main.do)

74) 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505면. 542-544면.

75) 이 지도를 보면 중앙 우측에 위치한 일본인 거류지와 중앙 좌측에 위치한 조선인 마을 원산리 사이에 다리가 있는 것이 보인다. 다리 바로 좌측으로 큰 길이 나있는데 길 가에 아직 부락이 형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그림 4〉 원산 전경 (Wŏnsan Chŏn'gyŏng), 1890년대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76]

부두 노동자들의 거류지 봉쇄 운동은 성공했다. 원산 주재 일본 영사는 조선 감리와 만나서 하역 사업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협력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 원산항에서 나룻배로 영업을 할 때에 일본 측과 조선 측은 자신들의 사공을 각각 한 명씩 태우고 매월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다.[77] 이는 원산항에서 조선인 부두 노동 조직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하역 작업은 부두로 짐을 내리는 일, 선박으로 짐을 싣는 일, 곡식 가마니를 세는 일, 선박에서 짐을 운반하는 일, 육지에서 짐을 나르는 일 등으로 분화되었다. 또한 조선인 임시 노동자의 집단인 "한산계"가 등장했는데,[78] 이는 다른 조선인 일반 노동자들은 이

76) 이 지도에는 중앙 바로 우측에 일본인 거류지와 중앙 좌측의 원산리 사이에 다리가 있고, 다리 바로 좌측에 집들이 들어선 것이 확인된다. 이 지도는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loc.gov)에서 열람할 수 있다.

77) 『국역 윤치호 일기』 4, 1899년 12월 31일.

78) 『제국신문』, 1900년 7월 14일 잡보.

미 안정적으로 고용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변화였다.[79]

1899년 9월 봉쇄 시위의 의의는 윤치호가 이를 "boycotting Japanese settlement," 즉 "일본인 거류지를 거부한 운동"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당시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의 문서에서는 "구타"나 "소동"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이 시위를 깎아내렸다. 반면 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 하라고 원산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싶어 한 유일한 관리였던 윤치호는 시위 주체인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다. 그에게 부두 노동자들은 문제나 일으키는 부랑자가 아닌 능동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소수"의 주민이었다. 그런 그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의 면모가 드러난 당시로서는 드문 대중 시위였던 셈이다.[80]

4. 1900년 7월 反십장[81] 운동

18세기 초 조운선 부역 노동이 폐지되고 조창이 설치된 지역의 지방관이 선인들을 선발하면서 해운하역업에서 고용 대행 겸 작업 감독이 처음 등장했다. 원칙적으로 지방관은 배 한척 당 1명의 沙工과 15명의 格軍을 직접 지정해야 했지만 사공만 직접 뽑고 격군 모집은 사공에게 위임했다.[82] 사공은 민간인 선주에게 임금을 받았고 또 漕卒과는 다르게 戶役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에 고용된 인력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곡 운반이라는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관리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83]

---

79) 양상현, 앞의 논문, 220-222면과 239-241면.

80) 『국역 윤치호 일기』 4, 1899년 12월 31일.

81) 구한 말과 대한제국기 해운하역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대행인 및 작업 감독의 기능을 했던 이들을 십장, 패장, 등패 등으로 불렀는데, 원산항의 경우 1902년 전까지는 패장과 등패라는 명칭이 쓰였지 십장이란 명칭은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이 중간 관리자들을 일반적으로 십장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십장이란 명칭을 썼다.

82) 崔完基, 1989『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 一潮閣, 60-62면.

조선 정부의 이 같은 하역 시장 개입은 19세기말 개항장에서도 이어졌다. 조선 시대부터 존재하던 포구와는 달리 개항장이 설치된 곳은 외국인의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또 영국인이 관리하는 해관이 위치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관행적 개입이 당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항에서는 개항 당시부터 당지 경찰이 세곡 운반의 중요성을 이유로 내세워 미곡 하역을 그 작업에 익숙한 영남출신 노동자들에게 전담시켰다. 그들의 두목들을 십장으로 임명했으며, 이후 십장들 간의 이해 다툼이 무역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중앙 정부의 外部에서 직접 십장의 폐지를 명하는 등, 정부가 십장제의 존폐를 좌우했다.[84] 부산항에서는 1890년에 외국 화물이 유실되었을 때 부두 노동자들의 두목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자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직접 감독관을 파견하고 자세한 단속 절차는 당지 경찰에 일임했다. 부산의 객주들이 고용한 노동자임에도 조선 정부는 노동자 두목들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았다.[85] 상대적으로 늦게 개항한 목포의 경우 개항 초기인 1898년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이 있었는데,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감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목포 감리에 募軍什長廳을 설치하고 십장 임명권을 행사했다.[86]

다른 개항장과 비교했을 때 20세기 초까지 원산에서는 십장과 조선 정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원산포는 조선 시대 가장 번성한 상업 포구 중 하나로 정부가 수세권을 행사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원산에서 개항장은 원산포가 아닌 그 북쪽 지역에 위치한 항구로서 처음 도착했을 때 "荒野"였다는 일본인의 증언이 있을 정도로 조선인들의 흔적이 적은 곳이었다.[87] 원산이 위치한 함경도에서는 국방상의 이유로 세곡을 중앙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은 인천과 달리 조운의 포구로 쓰이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정부가 세곡 보호를 내세워 선박 하역에 관여

83) 『순조실록』 21권, 순조 18년 (1818년) 1월 20일;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1864년) 1월 23일.

84) 『소장』 1, 경기도 인천부 모군 이치화 등 소장, 건양 원년 8월; 『인천항안』 3, 1897년 9월 1일; 『인천항관초』 7, 1895년 3월 24일.

85) 『부산항관초』 2, 1890년 3월 26일과 7월 6일; 『부첩』 1, 1890년 8월 16일.

86) 李喆宇, 앞의 논문, 12면.

87) 高尾新右衛門, 앞의 책, 5면.

할 명분도 없었다.[88] 1890년에 조선 정부가 원산항 부두 노동자들의 절도 등을 감독하는 "都監檢"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근거로 조선 정부가 이미 원산항의 노동 시장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산항에서의 "도감검"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고, 그가 실제 원산에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없다. 원산항에서 중앙 정부로 파견 요청을 한 일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부산항에서 도감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정부가 또 다른 개항장인 원산항에도 같이 파견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89] 1898년 5월 경무서 습격 사건 때 원산 감리서는 목포의 경우와 달리 소동을 일으킨 부두 노동자들을 감독하기 위해 십장을 통제할 정책을 세우는 대신 같이 습격에 참여한 십장들을 처벌하는 방법을 택했다.[90]

원산항 십장들은 부두 노동자들과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론은 경무서 습격 사건 당시 감리의 보고서에서 십장과 부두 노동자들을 다 같이 "牌契"라고 불렀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91] 당시 원산에서 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전통적 상호부조 조직이었는데, 그 목적이란 관혼상제 같은 사적인 행사도 있지만 학교 설립 같은 공공의 사업도 있었다. 계의 이름은 그 조직의 특징을 따서 "婚喪契"나 "學契"와 같이 지었는데,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의 집단을 "패계"라 부른 것은 그들이 일본인 거류지의 부두를 드나들 때 나무로 만든 패를 일종의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계"가 구성원들의 위계질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산항 십장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92]

그러나 십장과 노동자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1899년 9월 일본인 거류지 봉쇄 운동 이후로 위계적으로 바뀌었다. 시위 이후 더 이상 원산항의 하역을 일본인 노

88) 고승희, 2003『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자료원.

89) 양상현, 앞의 논문, 246-247면;『원산항관초』2, 1890년 11월 2일.

90)『덕원항보첩』2, 광무 2년 5월 23일.

91) 이 때문인지 당시 원산항에서는 부두 노동 시장의 십장들을 패장(牌長)이라고 불렀다.『덕원항보첩』2, 광무 2년 5월 23일.

92) 朝鮮總督府農商工部, 앞의 책, 118-119면.

동자가 독점할 수 없게 되자 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이들을 관리하고자 객주 상인들과 정부는 십장들에게 전보다 많은 권한을 주기 시작했다. 객주 상인들은 원산 선박 한 척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원산항 십장들과 맺기 시작했다. 원산 객주들이 해운과 하역 부문에 이전보다 많이 진출하게 됨에 따라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십장들과 정식 계약을 맺을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원산 감리서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대가로 그들의 임금에서 수수료(정규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10%, 임시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20%)를 떼는 권한을 십장에게 정식으로 주었다.[93] 이는 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로부터 걷을 수 있을 수수료의 규모도 커지고 이들을 통제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에서 감리서와 십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긴 결과였다.[94]

십장들이 감리서로부터 노동자 통제권과 수수료 수취권을 얻어낸 변화는 원산항 부두 노동자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1900년 7월, 정용익, 조도일, 김석오 등을 앞세운 백 명이 넘는 부두 노동자들은 원산항에서 십장들을 앞에 두고 팔을 높이 쳐들며 큰 목소리로, "우리가 부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 항구에 이르렀거늘 너희 패장들이 어찌 우리들이 술 마시고 잡기하고 싸움질하는 것을 막고 나서며 또 우리들의 임금을 뜯어 가는가."라며 십장제의 부당함을 성토했다.[95] 이는 그동안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십장이 자신들을 감독하고 착취하는 중간 관리로 변질되는 과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당시 원산 부두 노동자

93) 『소장』 4, 광무 4년 7월 원산항 십장 김만수의 청원서.

94) 단, 다른 개항장과는 달리 원산 감리서는 원산항 십장제 승인을 중앙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없다. 이 점을 고려해볼 때, 원칙주의자인 윤치호가 물러나고 후임인 박승봉(朴勝鳳)이 부임하기까지 서리 신형모가 원산 감리직을 대리한 1900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예외적 상황이 십장들이 부두 노동자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전환시킨 또 다른 배경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실록에 따르면 원산항 감리의 임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898년 1월 朴義秉, 1898년 5월 彭翰周, 1899년 1월 尹致昊, 1900년 6월 彭翰周(집무 사실 없음), 1900년 8월 朴勝鳳. 신변을 정리하고 원산으로 떠날 준비에 시간이 걸렸던 경우는 임명 시기와 실제 집무 시작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다.

95) 『소장』 4, 광무 4년 7월, 원산항 십장 김만수의 청원서와 십장 백동식 청원서.

들의 반 십장 운동은 목포 부두 노동 운동의 경우와는 달리 일부 부패한 십장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십장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급진적 형태를 띠었다.[96]

십장들은 정부의 권위를 빌려 노동자들의 반십장운동을 억누르고자 대한제국 外部에 청원을 보냈다. 청원서는 부두 노동자들이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리로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고 관부를 모욕하고 행동이 나쁘고 상업을 하며 거주민의 부를 침해하고 그들을 때리거나 하는 등 그 폐해가 없는 날이 없다."며 이들을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한다. 원산 감리서와 원산 토착민들이 부두 노동자들을 근본 없는 부랑자라고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주장이었다. 불과 2년 전, 십장들이 부두 노동자들과 같이 경무서를 습격해서 같은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97] 또한 십장들은 노동자 감독과 수수료 수취가 감리서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이고, 이를 노동자에게 고지했으며, 그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정해 놓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무서 습격 사건이 증명하듯이 지방관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진압할 수 없다고 생각한 십장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중앙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두 명의 대표를 서울로 보냈다.[98]

십장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길을 떠난 급박한 상황에서 부두 노동자들은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독자 대중에게 호소하는 창의적인 저항 방법을 택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해운을 통한 근대 우편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8년 김익승이 우편 업무를 접목한 해운업인 郵便汽船會社를 창립했고, 이후 원산항에서 우편 사업은 순조롭게 지속되어 당시 서울과 원산 사이에 "하루 1회" 우편 기선이 출항했다. 그리고 반 십장 운동이 있은 1900년 7월에는 발송 5,000건 도착 9,700건의 우편물 왕래가 있었다.[99] 당시 원산의 인구가 대략 20,000임을 감안하면[100] 우편 사

96) 양상현, 앞의 논문, 252면.

97) 청원에 앞장선 김만수는 경무서 습격 사건 때 체포되기도 했던 십장이었다. 『덕원항보첩』 2, 1898년 5월 23일.

98) 『소장』 4, 광무 4년 7월, 원산항 십장 김만수의 청원서와 십장 백동식 청원서.

99) 『通商彙纂: 韓國篇』 9, 261면과 309면.

업이 꽤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부두 노동자들은 일하는 곳이 항구였으므로 빈번히 드나드는 우편 기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자들은 십장들처럼 먼 여행을 떠나지 않고 원산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이용했던 것이다.

십장들이 7월 9일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하기 위해 서울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두 노동자들은 서둘러 우편 기선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신문사로 편지를 보냈고 그들의 편지는 7월 14일 잡보 면에 다음과 같이 실렸다.

> "원산항 모군 군계 소임들이 본사에 편지하였는데 소위 부두계라 선계라 한산계라 두량계라 선두계라 등부계라 하여 모군 명목이 합이 여섯 가지더라 그 사의인즉 항구 모군 패장들이 상오 팔시에 각국 조계지로 나와서 누웠다가 저녁때면 전대 들고 모군들이 번 돈을 적다 많다 하여가며 나누어가고 다른 데 가서 날품 판 돈이며 백여 리 태짐 져서 번 돈까지 혹 삼분일식 혹 사분일식 혹 십일조 혹 십이조 혹 평균분배하여 가고 심지어 푼거리 나무장사에게 분세를 내라고 시비가 무쌍하니 제 등골 빼어 모군질 하는 것도 이렇게 학정 하니 살 수가 없는 중에 십장 백동식 박기병 양인이 금월 초 구일에 떠나 상경하였는데 그 사건인즉 모군군중에 돈 적게 주겠다고 말하는 자를 징치 차로 훈령을 도득하려고 올라갔다더라."[101]

여기서 원산 부두 노동자들이 호소한 대상이 오래된 왕조의 사법적 권력이 아니라 담론의 힘을 가진 독자 대중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택한 신문사는 『제국신문』으로, 『황성신문』과는 달리 지식인들보다는 서민 독자들을 상대로 한 매체였다. 『제국 신문』의 대중적 특성은 당시 지식인들이 쓰던 국한문 혼용체가 아닌 한글로 출판을 한 사실에서 드러나는데, 당연히 부두 노동자들의 서한도 한글로 작성되었다. 또한 『제국신문』은 다른 어떤 신문보다 여성 독자의 투고문과 감수성이 풍부한 글을 많이 실은 신문이기도 했다. 부두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편지에서 거창한 서두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일하지 않고 임금만 떼어

---

100) 1899년 통계이고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高尾新右衛門, 앞의 책, 265면; 『덕원읍지』(규장각 지리지 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101) 『제국신문』, 1900년 7월 14일, 잡보.

가는 십장을 미워하는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었다. 설교적인 문체로 부두 노동자의 행실을 꾸짖는 것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십장들의 소장과 정반대였다. 나아가 당시 『제국신문』의 여성 기고자들이 일인칭이 아니라 "우리"라는 주어를 써서 폭넓은 여성 독자층에 다가갔듯이,[102] 부두 노동자들의 글도 힘들게 일하면서도 십장들에게 억압받는 나무꾼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함으로써 고된 일과 임금착취에 고통 받는 노동자의 일반적 이미지를 환기했다. 이처럼 부두 노동자들은 『제국신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노동운동을 전국적 노동 대중의 관심사로 만들고자 했다.

1900년 7월에 발생한 원산항 반 십장 운동의 직접적인 결말은 불분명하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원산항에서 십장제가 결국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고 살아남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개는 원산 지역 사회에서 부두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01년 4월, 감리서 직원을 우발적 폭행으로 죽게 한 일로 대한제국 外部는 "부두 노동자 무리" 전체의 조사와 처벌을 명했다.[103] 이로 인해 무법적인 노동자를 규율하기 위해 십장제가 꼭 필요하다는 명분이 정당화되었다. 마침내 1902년 무렵에는 원산항에도 "십장청"이 들어섰고, 십장들은 부두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대가로 外部에 일정액을 상납하기도 했다.[104]

5. 맺음말

본 논문은 대한제국기 원산항 조선인 노동자들의 경무서 습격 사건, 일본인 거류지 봉쇄 운동, 그리고 反십장 운동을 살펴보고 이들의 직접행동을 근대적인 노

102) 김복순, 「『제국신문』의 힘: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학사연구』 51, 343-385면.

103) 『덕원항보첩』 4, 광무 5년 4월 6일.

104) 『덕원항보첩』 4, 광무 5년 12월 7일. 그 후 을사늑약으로 인해 조선 정부가 행정권을 상실하면서 십장청은 유명무실해졌고, 결과적으로 원산 부두 노동자들이 십장들에게 공식적으로 지배당한 기간은 다른 개항장에 비해 짧았다.

동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다. 기존 연구들은 노동자들의 근대적 투쟁이 등장한 시기를 산업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서구식 노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한 1920년대라고 설명해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랑시에르의 논리적 폭동이란 개념에 근거해 노동자가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주체로 부상한 사건을 근대적 노동운동으로 보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근대 개항장 공간에서 타지인으로 배척받던 원산 부두 노동자들이 토착민의 저항 문화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운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저항이 근대적 노동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산항 노동자의 경무서 습격 사건은 이들이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에 무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경무서에 단체로 쳐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부두 노동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계기인 자신들의 불법적 도박 행위보다는 정부의 무능을 높이 외치며 논쟁의 초점을 옮겼다. 이들의 동원력과 전략을 고려해볼 때 1989년의 경무서 습격은 우발적인 폭력 소요라기보다는 근대 도시의 노동자들이 민란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립된 기존의 저항 수단 대신 집단을 이루어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 사건이었다.

反일본인 거류지 운동에서 원산항 조선인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撤市 투쟁이 아니라 일본인 거류지와 조선인 거류지를 잇는 다리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통상 방해를 저항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원산이라는 도시 공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정학적 이해를 잘 드러낸 직접 행동이었는데, 당시 개화사상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엘리트 지식인 중 한 명인 윤치호의 상황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원산항 노동자들의 反십장 운동은 중간착취 제도인 십장제의 철폐를 주장한 시위였다. 십장에 대한 불만은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개항장의 노동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제도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산 노동자들은 정부의 권위에 기대는 오래된 방식보다는 새로운 권력인 대중 독자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특히 그들은 근대 우편 제도와 증기선 해운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

는 창의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랑시에르는 근대적 정치경제가 전지구적으로 노동을 상품화하고 재생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를 노동 운동의 투쟁 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또한 그가 개념화 한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저항은 구체적인 특정 지역 사회나 문화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접근법을 한국근대사나 노동사 일반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논문투고일(2020. 5. 16), 심사일(2020. 5. 26), 게재확정일(2020. 6. 11)

참고문헌

1. 자료

『고종실록』.
『국역 매천야록』.
『국역 윤치호 일기』.
『대한매일신보』.
『덕원항보첩』.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부산항관초』.
『부첩』.
『소장』.
『순조실록』.
『元山發展史』.
『元山方面商工業調査』.
『원산항관초』.
『元山港日本居留地海岸提防築造工事條約書』.
『인천항관초』.
『인천항안』.
『日本外交文書』.
『제국신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通商彙纂: 韓國篇』.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1. 원산 본당 편 (1887-1921)』.
Korea: Political & Economic Reports 1882-1970 (주한영국영사 보고서).

2. 연구논저

가린-미하일롭스키 (이희수 옮김), 2010『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랴오둥반도 : 가린-미하일롭스키의 여행기』, 동북아역사재단.
고승희, 2003『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자료원.
김복순, 2013「『제국신문』의 힘: "여성의 감각"의 탄생」,『민족문학사연구』51.

김재호, 1999「개항지 원격지무역과 '회사': 대러시아 무역과 경성천일회사」,『경제사학』27.

김정기, 1989「1890년대 서울 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한국사연구』67.

羅愛子, 1998『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國學資料院.

裵鍾茂, 1994『木浦開港史 研究』, 느티나무.

배항섭, 2008「조선시대 민중의 시위 문화: 신문고에서 복합상소까지」,『내일을 여는 역사』.

_____, 2010「'근대이행기'의 민중의식: '근대'와 '반근대'의 너머: 토지소유 및 매매 관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23.

Bae, Hang-seob, 2010 "Kaesŏng Uprising of 189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5,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백브레트 (임충신 옮김), 1968「원산에서 북간도까지」,『경향잡지』3월호.

손영상, 2007「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제도의 정립과 운영」,『한국사론』53.

楊尙弦, 1986「韓末 부두노동자의 存在樣態와 노동운동: 목포항을 중심으로」,『韓國史論』14.

양상호, 1994「원산거류지의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건축역사연구』3권 2호.

와닌 유리 바실리예비치,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이영준 옮김), 2016『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을미사변에서 광복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진호, 2012「대한제국기 '노동회'의 성격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운동의 기원과 관련하여」,『경제발전연구』제18권 제1호.

_____, 2014「개항기 인천항 부두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조선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황해문화』83.

李喆宇, 1983「光武年間의 木浦埠頭勞動運動研究」,『學術論叢』.

鄭在貞, 1991「大韓帝國期 鐵道建設勞動者의 動員과 沿線住民의 抵抗運動」,『韓國史研究』73.

崔完基, 1989『朝鮮後期船運業史研究』, 一潮閣.

古川昭, 2004『元山開港史: 元山開港と日本人』, ふるかわ海事事務所.

不破和彦, 1975「港湾勞働者の同盟罷業と「組」制度: 明治期・門司港の石炭仲仕の事例」,『東北大學教育學部研究年報』第28集.

松本和樹, 2011「明治前期における横浜港湾勞働者」,『史觀』164.

Bird, Isabella Lucy, 1918 *Korea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s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Country*. London: J. Murray.

Burke, Peter, 2008 *History and Historians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Davies, Sam, Colin J. Davis, David, Vries, Lex H. Voss, Lidewij Hesselink, and Klaus Weinhauer, 2000 *Dock Workers: International Explorations in Comparative Labour History*, 1790-1970. Ashgate.

Feldman, David, 2002 "Class", *History and Historians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Gale, James Scarth, 1896 "Korean Coolie",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

Hershatter, Gail, 1986 *The Workers of Tianjin, 1900-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

Hobsbawm, E. J., 1959 *Primitive Rebels: Studies in Archaic Forms of Social Movement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Linden, Marcel van der, 2003 *Transnational Labour History*, Alershot: Ashgate.

Rancière, Jacques (trans. Donald Reid), 1989 *The Nights of Labor: The Workers' Dream in Nineteenth-century France*. Temple University Press.

_____, (trans. Julie Rose), 2008 *Disagreement: Politics and Philosoph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_____, (trans. David Fernbach), 2011 *Staging the People: The Proletarian and His Double*, Verso.

Sidney, Lu, 2016 "Colonizing Hokkaido and the Origin of Japanese Trans-Pacific Expansion, 1869 - 1894," *Japanese Studies*, Vol. 36, No. 2.

Sugiyama, Shin'ya, and Linda Grove, 2001 *Commercial Networks in Modern Asia*, Richmond, Surrey: Curzon.

Abstract

A Modern Labor Movement: Wŏnsan Dock Workers' Struggle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Hyun, Myung Ho *

This paper seeks to redefine the meaning of a modern labor movement by examining the collective actions of the Korean dock workers at Wŏnsan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In existing studies, the modernness of a labor organization is the central factor in evaluating how modern a labor movement is. From this perspective, they characterize Korean workers' struggle at this time as not yet modern because of the dominating presence of traditional hiring bosses, called *sipjang*, in their work organizations. This characterization has bolstered the widely accepted thesis that capitalism in Korea at the time was still at the stage of so-called semi-primitive accumulation. It also has helped to construct the established idea of the historical timeline that the turn of the century forms prehistory to the modernized labor movement of Korean workers in the 1920s with the infiltration of industrial capitalism and the introduction of labor unionism and socialism. My study, by contrast, argues that the direct actions of Wŏnsan Korean dock worker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exhibited the qualities of a modern labor movement. Their demonstrations, including the anti-police riot in May 1898, and the boycott of the Japanese Settlement in September 1899, and the anti-*sipjang* protest in July 1900, adopted the new strategies of political framing, geographical blockade, as well as an appeal to the public by sending a letter to a national newspaper.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se new forms of protest differ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popular resistance for the Korean people native to the Korean town of Wŏnsan, such as *minran* (people's riot), *chulsi*

* Ph.D., East Asian Studies, New York University.

(market closure), and *sojang* (petition). In assessing the modernity of the labor movement of the Korean workers, the paper emphasizes the relevance of the theory of the French philosopher Jacques Rancière on the equal intellectuality of the subject of modern popular movements, as well as the reality that the Wŏnsan Korean workers were outsiders in the local society who could not rely upon the methods of communal remedies but had to invent their ways of resistance.

Key words : Wŏnsan, Dock Work, Modern Labor Movement, Jacques Rancière, The Korean Empire Period